sūtra.

In other words, the former the forty-two teachings of the letter dhāraṇī provided the doctrine in the *Mahāvairocana-sūtra*, while the latter forty-nine (or fifty) teachings on the letters contributed to its grammatical structure. In this way, the esoteric 'mantra doctrine' was described in the so-called first esoteric scripture, the *Mahāvairocana-sūtra*, through accepting and combining previous scriptures.

Keywords

mantra doctrine, *Mahāvairocana-sūtra*,

forty-two teachings of the letter dhāraṇī,

forty-nine (or fifty) teachings on the letters, dhāraṇī

투고일자 2014.4.30 | 심사일자 2014.5.19 | 게재확정일자 2014.5.26

테라와다 불교의 재가불자 신행도*

—Upāsakajanālaṅkāra를 중심으로—

이자랑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Ⅰ. 서론

Ⅱ. 윤리적 생활의 확립

1. 계의 실천

2. 올바른 생활

Ⅲ. 종교적 실천

1. 10복업사의 실천과 장애법의 제거

2. 선정 수행의 필요성

Ⅳ. 결론

* 본 논문은 2013년 11월 23일에 「한국 테라와다불교 신행과 실천 수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세미나(한국테라와다불교 주최)에서 구두 발표한 「재가불자의 신행과 역할 -빨리문헌을 중심으로-」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요약문

본 논문은 12세기경에 테라와다 전통의 비구 아난다(Ānanda)가 지은 『우빠사까자나랑까라(Upāsakajanālaṅkāra)』라는 문헌을 중심으로 테라와다 불교의 재가불자 신행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교교단은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의 4중(衆)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출가와 재가라는 입장 차이로 인해 불도 수행이나 교단 내에서의 역할 등에 차이가 있지만, 교단을 지탱해 가는 네 개의 기둥으로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존하는 초기불교문헌은 출가자에 의해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출가자에 대한 교설이 중심을 이룬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출가자의 수행도나 생활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온 한편, 재가불자의 신행생활 등은 자료의 부족 내지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4중의 구성 인원으로서의 재가불자의 위치를 고려할 때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빠사까자나랑까라』는 제명(題名)에 이미 나타나듯이, 우바새의 불도 실천법을 설한 책이다. 12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후대의 것이지만,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빨리삼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초기불교 이래 전승되어 온 테라와다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인륜에 근거한 올바른 생활습관의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실천'이라는 이중구조 하에 재가실천도를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즉, 삼귀의(三歸依)를 통해 올바른 믿음을 확립한 후 오계나 올바른 생활을 통해 윤리적 삶을 실현하고, 나아가 10복업사(福業事)를 짓고, 장애법(障碍法)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세간과 출세간의 행복을 초래하는 종교적 실천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우빠사까자나랑까라』가 제시하는 재가불자 신행도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재가'라는 입장에서 안이함을 구하며 불교도로서 지향해야 할 올바른 삶을 방기하고 있지만, 출가자 못지않게 재가불자의 실천도 역시 정교하며 체계적이다. 출가자가 그들의 삶을 통해 최고의 선(善)을 실현하고자 정진하듯이, 재가불자 역시 자신들에게 걸맞는 실천도를 실행하며 불교도로서 지향해야 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빠사까자나랑까라』가 제시하는 우바새의 실천도 파악은 현대의 재가불자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생활의 내용 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재가불자, 우바새, 테라와다 불교, 『우빠사까자나랑까라』(Upāsakajanālaṅkāra), 오계, 팔재계, 복업사(福業事)

Ⅰ. 서론

불교교단은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의 4중(衆)으로 구성된다.[1] 이 가운데 비구 · 비구니는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승가의 정식 구성원이 된 남 · 녀 출가수행승, 우바새 · 우바이는 삼귀의와 오계의 수지를 통해 불교에 입문한 남 · 녀 재가불자를 각각 가리킨다. 4중의 구성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는 교단을 지탱해 가는 네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출가와 재가라는 입장 차이로 인해 불도 수행이나 교단 내에서의 역할 등에 차이가 있다. 현존하는 초기불교문헌은 출가자에 의해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출가자에 대한 교설이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그 동안 출가자의 수행도나 생활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에 비해 재가불자의 신행생활 등은 자료의 부족 내지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4중의 구성 인원으로서의 재가불자의 위치를 고려할 때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초기불교문헌 등에 산재(散在)하는 재가불자 관련 기술들을 통해 재가불자의 신행 내지 4중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등은 어느 정도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 정리 · 고찰한 연구는 이미 존재하는데,[2] 본고에서는 특히 테라와다 전통의 스리랑카 비구인 아난다(Ānanda)가 지은 『우빠사까자나랑까라(Upāsakajanālaṅkāra)』(이하, Uj로 약칭)[3]가 제시하는 재가실천도를 중심으로 재가불자의 신행 내지 실천도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문헌은 제명(題名)에 이미 나타나듯이,[4] 우바새의 불도 실천법을 설한 책이다. 12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후대의 것이지만,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빨리삼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초기불교 이래 전승되어

1) 4중에 예비 수행승 신분인 사미와 사미니, 그리고 식차마나를 넣어 7중(衆)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平川彰, 『原始仏教の研究』(東京: 春秋社, 1964), pp.48-52.

2) 조준호, 「초기경전에 나타난 재가자의 위상과 신행생활」, 『불교평론』 봄 제5권 제1호, 통권14 (서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3), pp.112-139; Chaowarithreonglith Bunchird, 「Aṅguttara Nikāyaにみられる出家者と在家者の役割, -Etadagga vaggaにおける '是第一弟子'を中心として-」, 『印度學佛教學研究』 54-1, 통권107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05), pp.477(76)-474(79); 곽도영, 「초기불교 재가불자의 전법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등.

3) Upāsakajanālaṅkāra -A Critical Edition and Study-, by H. Saddhatissa, PTS, 1965. (이하 Uj로 약칭)

4) upāsakajanālaṅkāra는 upāsaka(우바새, 재가불자)+jana(사람)+장엄(alaṅkāra)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Uj에서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삼보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우바새가 될 수 있는데, 귀의 등의 광채가 그들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귀의 등이] 『우바새라는 사람을 장엄(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서적은 사람들을 장식하는 그 모든 덕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지자(智者)들은 어의대로 『재가신자라는 사람을 장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Uj, p.123

온 테라와다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인륜에 근거한 올바른 생활습관의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종교적 실천을 실행한다고 하는 이중구조 하에 재가실천도를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한다.[5] 이 문헌 외에 테라와다 불교의 재가불자 신행도를 다룬 것으로 4종의 텍스트가 더 알려져 있지만,[6] Uj가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포괄적이다.[7] 따라서 테라와다 불교의 재가불자 신행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Uj는 매우 적절하고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랫동안 이 문헌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 Saddhatissa 박사가 스리랑카, 미얀마, 코펜하겐으로부터 11종의 사본을 모아 엄밀한 교정 작업을 거친 후 1965년에 PTS로부터 텍스트를 출판, 이후 나니와 노부아키(浪花宣明)가 1987년에 일본어 완역을 출판함으로써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 검토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빨리삼장에 산재되어 있는 재가불자 신행도가 후대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되고 설명되는지 Uj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제Ⅱ장과 제Ⅲ장에서는 각각 윤리적 생활의 확립, 그리고 종교적 실천이라는 두 가지 주제 하에 재가불자의 신행 생활을 다루게 되는데, 이는 Uj의 구성에 따른 것이다. Uj는 '인륜에 근거한 올바른 생활습관의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실천'을 주장한다. 삼귀의를 통해 올바른 믿음을 확립한 후 오계나 올바른 생활을 통해 윤리적 삶을 실현하고, 나아가 10복업사를 짓고, 장애법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세간과 출세간의 행복을 초래하는 종교적 실천을 실행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바새 · 우바이는 불교교단을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재가'라는 입장에서 안이함을 구하며 불교도로서 지향해야 할 올바른 삶을 방기하고 있지만, 출가자 못지않게 재가불자의 실천도 역시 정교하며 체계적이다. 출가자가 그들의 삶을 통해 최고의 선(善)을 실현하고자 정진하듯이, 재가불자 역시 자신들에게 걸 맞는 실천도를 실행하며 재가불자로서 지향해야 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Uj가 제시하는 우바새의 실천도 파악은 현대의 재가불자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생활의 내용 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Ⅱ. 윤리적 생활의 확립

1. 계의 실천

재가불자로서의 첫 걸음은 삼귀의의 표명으로 시작된다. 이는 누군가 한 명의 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합장한 후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라는 문구를 세 번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8]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마하나마야, 재가

5) 浪花宣明, 『在家佛教の研究』 (京都: 法藏館, 1987), p.119.

6) Uj 이외에 재가불자 불도 실천방법을 언급하는 문헌으로는 ①Paṭipattisaṅgaha ②Suttasaṅgaha ③Maṅgalattadīpanī ④Saddhammopāyana의 4종이 더 알려져 있다. 浪花宣明, 앞의 책, p.4.

7) 이 책의 내용이나 구성상의 특징, 저자, 원천 자료 등에 관해서는 교정자인 Saddhatissa 박사가 100쪽이 넘는 긴 서언을 통해 상세히 밝히고 있으므로 참고 바람. Uj, pp.1-111

8)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를 세 번 반복하는 형태는 후대에 정리된 것으로 보이며, 초기

불자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고 있다. 실로 그것만으로 재가불자이다"라고 설하는 바와 같이,[9] 삼귀의는 계정혜 등의 덕 가운데서 가장 처음 재가불자를 장엄하게 되는 근본적인 덕이라고 한다.[10] '귀의한다(saraṇaṃ gacchāmi)'라는 말에 대해 Uj는 디가 니까야의 주석인 『수망갈라윌라시니(Sumaṅgalavilāsinī)』의 문장을 인용하여 "없앤다는 의미에서 귀의처이다. 귀의한 사람들이 그 귀의에 의해 두려움 · 공포 · 고 · 악취라는 고난을 없애고 소멸시킨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한다.[11] 그렇다면 불법승은 어떻게 유정의 두려움을 없애주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비구들이여, 계를 구족해라'라고 하는 등의 이익이 되는 것은 권하고, '살생을 하는 자에게는 나쁜 과보가 미래의 운명이다'등이라고 하여 불이익을 막는 것에 의해 부처님은 유정의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에 귀의처이다. …"라고 설명한다.[12] 이 설명으로부터 귀의를 시작으로 재가불자는 내외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에 접어든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j는 재가실천도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른바 재가실천도의 총설이다.

> 이렇게 귀의한 우바새 · 우바이는 계에 확고히 머물러서, 적절한 두타지(頭陀支)를 수지함으로써 그 [귀의]를 정화하고, 5종의 직업을 버리고, 법에 따라 올바르게 생활함으로써 '연꽃과 같은 재가불자'등의 모습에 도달하여, 날마다 10복업사(福業事)를 충실히 실행하고, 장애가 되는 법들을 버려 세간과 출세간의 행복을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여기서의 개요이다.[13]

삼귀의의 표명을 통해 우바새 · 우바이가 된 자는 계와 적당한 두타지의 실천을 통해 그 귀의를 정화하고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여법하게 생활함으로써 훌륭한 재가불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0복업사를 실천하고 장애가 되는 법을 버리는 등의 종교적 실천을 통해 세간과 출세간의 행복을 완성시켜 간다. 이것이 Uj가 제시하는 재가실천도의 구조이다.

삼귀의를 통해 재가불자가 된 자는 먼저 오계의 수지를 맹서해야 한다.[14] 본격적인 재가실천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노력해라. 여래는 오로지 설할 뿐이다. 마음을 닦고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은 악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담마빠다(Dhammapada)』의 한 게송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15] 수행을 통해 해탈해 가야 한다. 그

에는 한 번만 읊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빨리율「대건도」에 의하면, 불법승 삼보가 갖추어진 후, 처음 우바새와 우바이가 된 야사(Yasa)라는 청년의 부모와 야사의 아내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을 일으켜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삼귀의를 한 번만 읊고 있다. Vin. Ⅰ, pp.16, 18; DN. Ⅰ, p.125. 平川彰, 앞의 책, pp.406-407.

9) AN. Ⅳ, p.220

10) Uj, p.124

11) Uj, pp.137-138; DA. Ⅰ, p.230

12) Uj, pp.137-138

13) Uj, p.174

14) 빨리문헌에서는 재가불자의 귀의가 오계 수지의 맹서 없이 삼귀의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특징이 발견된다. 長井眞琴, 『南方所傳佛典の硏究』(東京: 中文館書店, 1936), p.278.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한다면 우바새이다"라고 규정한다. AN. Ⅳ, p.220 즉, 삼귀의의 표명만으로 재가불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역 아함의 경우에는 삼귀오계가 일반적이지만, 오계수지 없이 삼귀의의 표명만을 언급하는 것도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히라카와(平川)는 아함경 시대에는 우바새나 우바이가 되기 위해 오계를 받는 것이 필수조건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平川彰, 앞의 책, pp.407-412.

15) Dhp., 276게

시작이 바로 계의 실천이다. 재가자의 수계 형식은 간단하다. 비구나 비구니, 혹은 우바새나 우바이도 계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수계자(授戒者)가 될 수 있다.[16] 오늘, 혹은 지금부터 보름, 혹은 한 달, 혹은 한 계절, 혹은 1년, 혹은 평생이라는 시한을 명확히 하며 '저는 오계를 수지합니다'라고 하여 오계를 한꺼번에 수지한 후, 다시 오계 하나 하나에 관해 수지를 맹서하면 된다.[17] Uj에 의하면, 단 한가지만은 수계 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즉, 자신이 수지하고 있는 삼귀의의 더러움과 파괴에 관한 반성이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먼저 귀의를 정화한 후에 오계를 받아야 한다. 즉 삼귀의를 다시 표명하는 것이다.[18]

수계를 통해 계체(戒体)를 획득한 수계자는 이후 계체의 힘에 의해 악행을 멈추고 선한 습관을 쌓아가게 된다. 계(戒)의 원어에 해당하는 sīla는 √śīl(명상하다, 봉사하다, 실행하다)로부터 파생된 명사로 습관, 경향, 성격 등의 의미를 지니며, 이로부터 발전하여 선한 습관, 선한 행위, 도덕적 행위 등을 의미한다. 테라와다불교에서 sīla라는 말은 종종 samādhāna(正持)와 upadhāraṇa(確持)라는 두 가지 뜻으로 설명된다. 다음과 같다.

> "습관적으로 행한다(sīlana)는 의미에서 sīla이다. 올바르게 지닌다는 의미, 혹은 확실하게 지닌다는 의미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 가운데 올바르게 지닌다고 하는 것은 선한 습관에 의해 신업 등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확실하게 지닌다고 하는 것은 제 선법을 확립함으로써 토대가 되는 상태이다."[19]

이 정의에 의하면, samādhāna는 올바른 행동을 습관처럼 몸에 익혀 신업 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upadhāraṇa 역시 습관이 된 선한 신업이 모든 선(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계를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하는 태도는 Uj 외의 다른 빨리 논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20]

재가불자가 지켜야 할 계는 상계(常戒, nicca-sīla)와 포살계(uposatha-sīla, 布薩戒)의 2종으로 나뉜다. 상계란 항상 지켜야 할 계이며, 포살계는 포살일 하루 밤낮 동안 지켜야 할 계이다. 이 중 상계의 내용으로 Uj는 오계와 십계를 든다. 먼저 오계는 불살생(不殺生), 불여취(不與取), 불사음(不邪婬),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이다.[21] 즉, 살생으로부터 떠날 것,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떠날 것, 삿된 음행으로부터 떠날 것, 거짓말로부터 떠날 것, 수라주·메라야주와 같은 방일(放逸)의 원인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악행은 크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며, 또한 지키기 쉬우므로 상계로 삼는다고 한다.[22]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오계는 불교 특유의 가르

16) 심지어 적절한 수계자를 찾지 못했을 때는 혼자 마음으로 맹서하고 수계하는, 이른바 '自誓受戒'도 가능하다고 한다. Uj, p.182
17) Uj, p.182
18) Uj, p.182
19) Uj, p.174.
20) Vism., p.8에서도 "습관적으로 행한다는 의미에서 계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습관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올바르게 지닌다는 것이다. 계를 잘 지킴으로써 身業 등이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혹은 확고하게 지킨다는 것이다. 제 선법을 확립함으로써 토대가 되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어원을 아는 자들은 여기서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인정한다."라고 하여 Uj의 설명과 거의 동일하다.
21) Uj, p.174; Vin. Ⅰ, p.83
22) Uj, pp.174-175

침은 아니다. 고대인도 사회에서 권장되고 있던 도덕적인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계로 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계의 불교적 의미는 무엇일까? Uj를 번역한 나니와 노부아키(浪花宣明)는 Uj를 근거로 '자애', 그리고 '번뇌의 제어'라는 두 가지 점을 든다. Uj에서는 불살생 · 불투도 등의 순서로 오계를 열거하는 것에 관해 "명근(命根)은 모든 활동의 근원이므로, 또한 유정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살생으로부터의 떠남이 설해졌다. 재산을 빼앗는 것도 또한 유정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빼앗는 것처럼 싫은 일이므로 그 다음으로 불여취로부터의 떠남이 설해졌다"라고 설명하는 등 일체 생류에 대한 자애, 다시 말해 오계 준수의 근원을 자애심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23] 또한 "성내지 않는 자는 피부의 주름이나 백발을 초래하는 성냄이라는 불에 타지 않고 오랫동안 안락하므로, 가장 먼저 무진(無瞋)을 근원으로 하는 살생으로부터의 떠남이 설해졌다"고 설명하는 등, 오계를 지킴으로써 번뇌의 방종을 진압할 수 있다고 한다.[24] 이 점에 대해 나니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Uj는 오계에 두 가지 의의를 인정하는데, 그 중 하나는 원심적(遠心的) 의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오계는 불교에서도 인륜 · 도덕의 근원이다. 그 오계는 불교에서 자애의 정신에 의해 준수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애의 정신이 오계로 구체화 · 객관화되고, 그것이 또한 인륜 · 도덕의 근저로서 사회생활 속에 전개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두 번째 의의는 구심적(求心的)이다. 오계의 준수에 의해 번뇌의 방종을 진압하고 개인의 정신을 청정화해 가는 것이다."[25]

이 두 가지 특징은 안과 밖을 동시에 지향하는 계의 특성을 매우 잘 지적한 적절한 이해라고 생각된다. 재가불자는 오계의 준수를 통해 내면적으로는 번뇌를 제어하고, 밖으로는 자애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악행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심신에 좋은 습관이 붙어 악행을 떠나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계의 이상적인 상태이다.

한편, 만약 능력이 있다면 재가불자라도 십계를 상계로 지킬 것이 권장된다.[26] 십계는 사미 · 사미니의 십계와 동일하다. 즉, 오계에 불비시식(不非時食), 불가무관청(不歌舞觀聽), 불도식만향(不塗飾鬘香), 불좌고상대상(不坐高床大床), 불수축금은(不受蓄金銀)을 더한 것이다. 비시식계는 비시(非時), 즉 그날 정오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식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식사는 오전 중에 한 번만 해야 하며, 이외의 시간에는 물이나 쥬스 등 건더기가 없는 음료수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불가무관청계는 무용이나 음악, 노래 등을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거나 듣지 않는 것이며, 도식만향계는 꽃이나 향으로 분장하고 장신구로 치장하지 않는 것, 불좌고상대상계는 너무 크고 호화스러운 와좌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수축금은계는 금은을 받거나 축적하지 않는 것이다. 이 십계는 능력 있는 자에게 권

23) 浪花宣明, 앞의 책, pp.72-74. Uj, p.194
24) 浪花宣明, 앞의 책, p.73. Uj, p.195
25) 浪花宣明, 앞의 책, pp.73-74.
26) Vism., p.15에서도 "능력이 있을 때는 십계이다"라고 하여 십계 수지를 권한다. Uj 역시 이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Uj, p.193

장되는 것으로 결코 강요되지는 않는다. Uj는 그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든다. 첫째, 살생 등의 다섯 가지 악행은 크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다. 둘째, 지키기 쉽다. 셋째, 초학(初學)의 재가불자에게 십계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설한다면, 그는 부담감으로 인해 아무 것도 지킬 수 없을 지도 모른다.[27] 즉, 오계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행위이면서도 오히려 비시식계나 불수축금은계 등에 비해 지키기 쉬운 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포살일 하루 밤낮을 지키게 되는 포살계의 내용은 팔재계이다. 이는 불살생, 불투도, 불비범행(不非梵行), 불망어, 불음주, 불비시식, 불가무관청도식만향, 불좌고상대상의 8계이다. 오계에 불비시식 이후의 세 가지 계를 더한 것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불비범행이다. 오계에서는 불사음이었던 것이 팔재계에서는 불비범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불사음이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 관계를 금하는 것이지만, 팔재계의 불비범행은 모든 성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포살일 하루 만은 재가자도 출가자처럼 완전한 금욕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포살일은 매달 8, 14, 15, 23, 29, 30일의 6회로 육재일(六齋日)이 일반적인데, Uj에서는 특별히 육재일설을 고집하지는 않으며, 재일 제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신자가 포살 수행을 결의한 날이 포살일이라고 한다.[28]

그렇다면 재가자도 포살일에 팔재계를 지키며 경건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 "여기에 성스러운 제자가 있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모든 아라한은 생명이 있는 한 살생을 끊고, 살생을 떠나,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며, 내외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자애로 가득차고, 일체 생류를 애민한다. 지금 나도 또한 오늘 낮밤, 살생을 끊고, 살생을 떠나,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며, 부끄러움을 알고, 자애를 갖추고, 일체 생류를 애민하며 생활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지분에 의해 저는 아라한을 모방하여 포살을 수행하겠습니다.'이것에 의해 첫 번째 지분을 구족하는 것이다."[29]

이는 팔재계 가운데 불살생계에 관한 것인데, 이후 다른 계에 관해서도 마지막에 "나는 아라한을 모방하여 포살을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가불자의 포살행은 아라한의 청정행을 생각하고, 스스로도 그 청정행을 하루 낮밤이라도 실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Uj에서는 이러한 상계와 포살계의 실천과 더불어 "적절한 두타지를 받음으로써 계를 정화할 것"을 권장한다.[30] 단, 13두타지 전부는 아니며 '일좌식지(一座食支, ekāsanikaṅga)'와 '일발식지(一鉢食支, pattapiṇḍikaṅga)'만이 재가불자에게 적합하다고 한다.[31] 일좌식지란 한 장소에서만 식사하는 것이며, 일발식지란 하나의 발우에 담긴 음식만을 먹는 것이다. 일좌식지와 일발식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공통적으

27) Uj, p.175
28) Uj, pp.192-193
29) AN. Ⅰ, p.211; Ⅳ, p.248
30) Uj, p.247
31) Uj, p.248

로 맛에 대한 애착이나 욕망을 단절함으로써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32] 하지만 이 두 가지 두타행의 수지 역시 적합한 사람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만약 우아한 성격을 지녀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33] 그리고 이 두 가지 두타행을 수지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자는 도중에 좌절하지 않도록 스승의 지위에 있는 누군가 밑에서 해야 한다고 한다.[34]

2. 올바른 생활

계의 수지 · 실천과 더불어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올바른 생활이다. 재가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가르침은 몇몇 초기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데, Uj는 이들을 근거로 "5종의 직업을 버리고, 법에 따라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재가불자의 이상적인 생활양식으로 기술한다. 먼저 『앙굿따라 니까야』를 근거로[35] 다음 다섯 가지 직업을 버려야 한다고 한다. 5종의 직업이란 칼장사(satthavaṇijjā), 사람장사(sattavaṇijjā), 고기장사(maṃsavaṇijjā), 술장사(majjavaṇijjā), 독약장사(visavaṇijjā)이다. 칼장사란 무기를 스스로 제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입수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장사란 사람을 매매하는 것이며, 고기장사는 식육용으로 동물을 사육하여 고기를 판매하는 것이다. 술장사란 곡주이든 과실주이든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독약장사는 독약을 제조하거나 채집해서 판매하는 것이다.[36] 이 5종의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칼장사와 독약장사는 타인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 노예장사는 노예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고기장사는 살해자의 원인이 되므로, 술장사는 방일의 원인이 되므로 안 된다고 한다.[37]

32) Uj, pp.250-252; Vism., pp.69-70
33) Uj, p.252
34)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맹서하고 수지해야 한다고 한다. Uj, p.248
35) AN. Ⅲ, p.208
36) Uj, p.254
37) Uj, p.254. 바람직하지 못한 5종의 직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Uj의 기술(이는 물론 Uj만의 입장은 아니며, 초기불교 문헌 곳곳에서 설해지는 바이다)은 쟁론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필자가 본 논문을 구두 발표했을 때, "그렇다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불교도가 될 수 없는가. 불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 점에 대해 분계수지(分戒受持)의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분계수지란 오계 가운데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계만 선택해서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업상 불살생계를 지킬 수 없으니, 아예 처음부터 불살생계는 받지 않는 것이다. 5계의 분계수지는 이미 『우바새계경』 권3에서도 설해지는 것으로, 중국에 불교가 유입되었을 당시 술의 天下인 중국에 불교를 홍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다. 道端良秀, 『中國佛敎史の硏究 -佛敎と社會倫理-』, 1970, 法藏館, pp.256-261. 이와 같이 분계수지는 불교의 현실적인 수용이라는 면만을 고려한다면 분명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별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오계 수지 속에 담긴 의미는 망각한, 그야말로 현실적 수용만을 고려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살생계를 예로 들어 보자. 이 계는 단지 살생을 '저지르지 말라'는 금지 차원의 규칙이 아니다. 生類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을 기반으로 폭력이나 살생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멀리 떠나게 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불살생계의 수지를 통해 고귀한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과 존중심을 익혀 가는 것이다. 그런데 직업상의 이유를 들어 아예 처음부터 불살생계를 받지 않고, 따라서 살생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불교도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오히려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라도 불살생계를 반복해서 받음으로써 항상 자신의 악행을 부끄럽게 여기고 참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상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살생 방법이나 살생 대상의 제한 등에 있어 최대한의 배려와 주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언젠가 자신의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까지 일으키게 된다면 더욱 더 좋을 것이다. Uj의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불살생계를 비롯한 5계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생류도 파멸로 이끄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악행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분계수지의 적용은 좀 더 신중하게 제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편 세속인을 위한 삶의 지침을 담은 대표적인 경전으로 『디가 니까야』제31경 「싱갈로와다 숫딴따(Siṅgālovāda Suttanta)」[38]를 근거로 '법에 따라 올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한다. 첫째, 4종의 업(業)번뇌를 버려라. 둘째, 악업의 4종의 원인을 행하지 마라. 셋째, 재산을 잃는 여섯 가지 원인을 피해라. 넷째, 4종의 악우를 피해라. 다섯째, 4종의 선우와 친하게 지내라. 여섯째, 여섯 방각을 수호해라. 이 여섯 가지 실천도의 의의를 Uj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 실천도는] 현세와 내세로 일컬어지는 두 세계에서 형벌과 악취(惡趣)의 두려움 등을 부수어버리기 때문에 '두 세계의 승리'라 불린다.[39]

여섯 가지 실천도 중 4종의 업번뇌(kammakilesa)[40]란 살생, 불여취(不與取), 욕사행(欲邪行), 망어(妄語)이며, 악업의 4종의 원인이란 탐 · 진 · 치와 두려움을 일컫는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예를 들면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잘못된 복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41] 재산을 잃는 6종의 원인이란 음주, 부적절한 때의 외출, 구경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 도박, 악우(惡友)와의 교제, 게으름이다. 이 중 음주에 대해 Uj는 '붓다가 음주를 금지한 것은 유정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닌, 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될 재난으로부터 유정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42] 한편, "부적절한 때의 외출"이란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처자식도 재산도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게 하며, 또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와 조우하여 의심받거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도 있으며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이다.[43]"구경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란 어디에서 무용, 노래, 음악 공연이 있는가 묻고 다니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4]

"4종의 악우"란 무엇이든 빼앗아 가는 자, 말뿐인 자, 감언을 늘어놓는 자, 재산을 흩어지게 하는 자이다. 이런 자는 친구인 척 하지만 사실은 적이다.[45] 이에 비해 "4종의 선우"란, 도와주는 친구,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 같은 친구, 이익이 되는 일을 알려주는 친구, 동정심이 많은 친구이다.[46] "여섯 방각의 수호"란 재가생활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6종으로 나누고 그 인간관계에서 재가자가 취해야 할 생활태도를 설한 것이다. 6종이란 부모 자식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부부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수행자와 재가자의 관계이다. 이들 6종의 관계에 대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설하고 있다.[47] 이 외에도 재산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나,[48] 부녀자에 대한 가르침이 설해진다.[49]

38) DN. Ⅲ, pp.180-193
39) Uj, p.255
40) "유정은 이것들로 업을 더럽히기 때문에, 혹은 번뇌와 상응하기 때문에 업번뇌이다"라고 한다. Uj, p.256
41) Uj, p.256
42) Uj, p.258
43) Uj, p.258
44) Uj, p.258
45) Uj, pp.263-264
46) Uj, p.267
47) Uj, pp.255-279
48) Uj, pp.279-280
49) Uj, pp.280-283; AN. Ⅱ, pp.202-205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올바른 생활을 결의하더라도 막상 실천하다보면 긴장감이 풀어져 제대로 안 될 경우가 있다. 즉, 욕심이나 낭비, 내외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 등에 의해 더러워 질 수 있는데, 이는 소욕지족, 검약, 독거(獨居)를 통해 정화해야 한다.[50] 이와 같이 올바르게 실천하며 청정한 생활을 유지하는 자를 Uj는 재가불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라 하여 "연꽃과 같은 재가불자" 혹은 "보물과 같은 재가불자"라 부른다.[51] 그리고 『앙굿따라 니까야』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한다.

> "믿음을 지니고, 계를 실천하며, 예언을 하지 않고, 업보를 믿어 요행을 바라지 않으며, 이 분[붓다]외에 달리 공양할 자를 찾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52]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갖춘 재가신자야말로 재가불자 중의 보물이자 연꽃인 것이다.

Ⅲ. 종교적 실천

1. 10복업사의 실천과 장애법의 제거

Uj의 재가실천도는 인륜에 근거한 올바른 생활습관의 확립과, 그 위에 선 종교적 실천이라는 이중구조를 취한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자는 계와 두타지의 실천, 그리고 올바른 생활의 확립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종교적 실천'은 세간의 행복을 초래하는 복업과 출세간의 행복을 초래하는 선정 수행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세간의 행복을 초래하는 복업의 내용은 10복업사(福業事, puññakiriyavatthu), 그리고 장애법의 제거이다. 먼저 10복업사란 보시(dāna), 계(sīla), 수행(bhāvanā), 공경(apacāyana), 작무(veyyāvacca), 공덕의 시여(pattidāna), 공덕의 수희(隨喜, pattānumodana), 문법(聞法, dhammasavaṇa), 설법(dhammadesanā), 견정업(見正業, diṭṭhijjukamma)이다.[53]

먼저 보시를 보자. 보시는 재가불자의 실천행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서도 첫 번째 복업사로 거론된다. Uj에서는 보시를 "물품을 보시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정의하고 있다.[54] 즉, 보시의 본질을 보시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의지(cetan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한다.

> 앞의 [의지]와 같을 때의 [의지], 그리고 후의 [의지]라는 세 가지 의지가 모두 보시로 이루어진 복이다. 나머지[복]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설명되

50) Uj, p.283
51) Uj, pp.283-284
52) AN. Ⅲ, p.206; Ⅴ, p.175
53) Uj, p.285. 10복업사는 보시, 계, 수습의 3복업사에 포함된다. 초기경전 이후 빨리상좌부에서는 복업의 내용을 증광해 갔는데 특히 마하위하라(Mahāvihāra, 大寺)파에서는 10복업사, 그 대항세력이었던 아바야기리(Abhayagiri, 無畏山寺)파에서는 12복업사를 헤아린다. 浪花宣明, 앞의 책, p.122. Uj에서는 담마빨라(Dhammapāla)의 설명을 들어 3복업사 가운데 보시에는 공덕의 시여와 공덕의 수희가 포함되며, 계에는 공경과 작무, 수행에는 문법과 설법, 그리고 견정업이 각각 포함된다고 한다. Uj, p.291
54) Uj, p.286

어야 한다.[55]

보시하기 위해 물건을 준비할 때, 물건을 보시할 때, 그리고 보시하고 난 후의 마음까지도 모두 중요시되고 있다.[56] 이 세 가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보시라는 행위가 복업이 되는 근거가 된다. 다음과 같이 설해진다.

"보시하기 전에는 기뻐하고, 줄 때는 마음이 청정하며, 주고 나서는 만족해야 한다."[57]

이와 같이 보시자의 마음 상태는 보시가 복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데, 이와 더불어 주는 방법 역시 중요하다. 올바른 보시 방법으로는 받는 자를 존경하며 준다, 보시물을 존중하며 준다, 자신의 손으로 준다, 던지지 않고 준다, 과보가 올 것을 알고 준다고 하는 다섯 가지가 언급된다.[58] 그리고 보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좋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좋은 평판이 생긴다, 재가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하는 5종의 공덕을 쌓게 된다고 한다.[59] 이는 물론 보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공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익을 주고자"보

55) Uj, p.286
56) Uj, pp.286-287
57) Uj, p.294; AN. Ⅲ, p.337
58) Uj, p.295; AN. Ⅲ, p.172
59) Uj, p.294; AN. Ⅲ, p.41

시한다고 하는 Uj의 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60] 보시의 목적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자애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보시를 통해 자애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Uj에서는 보시에 의해 무루의 세계로 곧 들어간다고는 설하지 않는다. 보시를 통해 자애심을 기르고 다른 복업을 실천하고, 나아가 선정 수행을 함으로써 출세간의 행복을 지향하게 된다.[61]

계는 본고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제3의 복업사인 수행에 대해 Uj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0개의 명상주제와 온(蘊) 등의 4지(地)에 대해 수행하고 사유함으로써 발생한 안지(安止 appanā)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종성(種姓)을 마지막으로 하는 의지가 수행이다.[62]

범부의 종성을 버리고 성자의 종성을 얻기 전까지, 다시 말해 욕계선(欲界禪)인 근행정(近行定, upacāra-samādhi)까지의 수행이 제3의 복업사임을 알 수 있다. 제4의 공경은 나이가 많거나 덕이 있어 공양할 만한 사람, 혹은 스승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명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예를 들어 스승이 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거나, 의발을 받아들거나, 길을 가르쳐 주거나, 자리를 마련하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63] 한편, 작무는 사문이나

60) Uj, p.286
61) 浪花宣明, 앞의 책, p.131.
62) Uj, p.288
63) Uj, pp.288-289

바라문 혹은 연장자를 위해 여러 가지 의무행을 하거나, 혹은 병자를 간호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공경과 작무의 차이는 경의를 표하는 것이 공경이며, 고령자나 병인 등을 위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작무이다.[64] 제6의 "공덕의 시여"란 '회향(廻向, pariṇāmana)'을 의미한다. Uj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보시 등의 어떤 선행의 업을 행하며 '아무개에게 공덕 있어라'혹은 '모든 유정에게 공덕 있어라'라고 자신이 행한 바를 타인과 공유하는 상태를 기대함으로써 발생한 의지가 공덕의 시여이다."[65]

마치 하나의 등불이 수많은 등불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다른 이에게 공덕을 주어도 자신의 복은 쇠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증대하게 된다.[66] 제7의 "공덕의 수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 선행을 자신에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던지 간에 질투하는 일 없이 함께 기뻐하는 자의 의지를 말한다.[67] 제8의 "문법", 즉 법을 듣는다는 것은 "'이 가르침을 듣고 거기서 설해진 방법대로 실천하고 세간과 출세간의 훌륭한 덕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혹은 박식해지고, 가르침을 교시하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이처럼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청청한 마음에 의해 이익이 되는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의지"라고 한다.[68] 제9의 설법이란 이익이 없음을 생각지 않고 자신이 숙지한 가르침이 해탈의 원인이 될 것을 목적으로 설법을 지속하는 자의 의지이다.[69] 제10의 견정업(diṭṭhijjukamma)이란 "'보시는 공덕이 있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발생한 정견(正見)에 의해 견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70]

이 10복업사와 함께 생천(生天)의 장애이자 도(道)의 장애가 되는 행동들을 버려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자를 비방하는 것과 5무간업이 거론된다. 성자를 비방하는 것이란 "부처님이나 독각, 성문 등의 성자 혹은 재가의 예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극단적인 악행이나 덕을 훼손하여 비방하고 중상하고 비난하는 자"를 말한다.[71]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은 성자가 아니다'라고 하며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와, '이 사람에게는 선정도 해탈도 없다'고 말하는 등 성자의 덕을 비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매우 큰 죄이기는 하지만 사죄에 의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5무간업은 용서받을 수 없다.[72] 5무간업이란 어머니 · 아버지 · 아라한을 각각 죽이거나 승가를 파괴하거나 부처님의 신체로부터 피를 흘리게 하는 행동이다.[73]

64) Uj, pp.288-289
65) Uj, p.289
66) Uj, p.289
67) Uj, p.290
68) Uj, p.290
69) Uj, p.290
70) Uj, p.290
71) Uj, p.311
72) 하지만 무간업을 지은 아자따삿뚜왕에게도 붓다가 법을 설하고 그의 참회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사 5무간업을 지은 경우라도 법을 듣거나 수행하는 일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73) Uj, p.314 生天의 장애이자 道의 장애가 되는 행동으로 5무간업을 거론하고 있는데, 5무간업 가운데 '파승(破僧, saṃghabheda)'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다. 파승, 즉 승단 분열은 출가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Uj 역시 "데와닷타처럼 가르침을 삿된 법과 삿된 율로 하여 4가지 갈마 가운데 하나에 의해 승가를 파괴하는 자를 승가의 파괴자라고 한다. 求聽갈마, 表白갈마, 白二갈마, 白四갈마라 칭해지는 4가지 갈마 가운데 하나의 승가갈마를 하나의 結界 안에서 따로따로 행하는 자에 의해 승가는 파괴되는 것이며,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파승은] 없다."라고 추가 설명하고 있

2. 선정 수행의 필요성

이상 언급한 10종의 복업사를 닦고 장애법을 제거함으로써 재가불자는 세간의 행복을 완성시키는 길을 걷게 된다.[74] 10복업사와 장애법의 제거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욕계천(欲界天)의 낙과이다. 재가불자의 실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재가불자가 욕유(欲有)의 행복을 향유한 후, 색유(色有)의 행복도 향유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한다.

>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하며, 수행이 되었고, 가르침을 설하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참을 줄 알며, 심오한 이야기를 하며, 도리에 어긋난 것을 권하지 않는 자"[75]라고 이와 같이 [말해진] 선한 덕을 갖춘 선우와 친하게 지내고, 『청정도론』에서 설해진 방법대로 [각자의] 성격에 맞는 명상주제를 파악하여, 감각적 욕망 · 악의 · 성냄 · 혼침(惛沈) · 들뜸 · 후회 · 의심을 버리고, 심(尋) · 사(伺)[76] · 희(喜) · 낙(樂) · 심일경성(心一境性)과 상응한 초선을 닦아야 한다."[77]

이로 보아 보시 등의 복업에 의해 얻어지는 천계는 욕계천일 뿐, 그 위의 천은 선정 수행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 Uj에서는 제2선부터 제5선의 수행과 그 과보, 그리고 무상유정(無想有情)의 행복으로 색유의 행복까지 언급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색유의 행복을 향유한 후에 무색유(無色有)의 행복도 원하는 재가불자는 『청정도론』에 설해진 방법대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차례대로 닦아야 한다.[78]

이러한 일련의 수행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출세간의 행복은 성문의 깨달음(sāvakabodhi) · 독각의 깨달음(paccekabodhi) · 등정각(等正覺, sammāsambodhi)의 3종이다. 이중 하나를 획득함으로써 출세간의 행복을 성취하게 된다. 그런데 Uj에서는 성문의 깨달음과 독각의 깨달음은 재가불자라도 출가자와 똑같이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등정각의 획득을 위해서는 출가가 필요하다고 한다.[79] 사실 초기경전에서는 재가 생활이 결박이 많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은 반복해서 설하고 있지만, 재가가는 해탈 ·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기술은 거의 없다. "왓챠야, 재가자로 재가의 결박을 끊지 않고, 몸이 파괴된 후,

---

어 파승이 출가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임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다. Uj, pp.315-316

74) Uj의 제7장 「세간의 행복에 대한 설명(lokiyasampattiniddeso)」에서는 재가불자를 장자와 바라문, 왕족, 지방의 국왕, 전륜성왕, 천왕(天王)으로 분류한 후, 이들의 행복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Uj, pp.317-333

75) Vism., p.98; AN. Ⅳ, p.32 등

76) 尋(vitakka)과 伺(vicāra)의 차이를 빨리율의 주석인 Smp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중에서 vitakka란 대충 고찰하는 것이다. [즉] 思考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대상에 대해 마음이 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접촉하는 것, 타격을 주는 것을 그 기본 작용으로 한다. 즉 그것에 의해 요가를 행하고 있는 자(혹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자)는 대상을 vitakka에 의해 접촉하고 vitakka에 의해 타격을 준다고 설해지듯이, 대상에 대해 마음이 인도되는 것이 [vitakka의] 현현이다. vicāra란 [마음이]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것이다. 숙고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대상을 반복해서 타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대상에 그것과 함께 발생한 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그 기본 작용으로 한다. 마음을 연달아 연결시키는 것이 vicāra의 현현이다." Smp. Ⅰ, p.144. 한편 대림스님은 vitakka를 '일으킨 생각'으로, vicāra를 '지속적인 고찰'로 번역한다. 대림스님 옮김, 『청정도론』 제1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4), p.269.

77) Uj, p.333

78) Uj, pp.337-338

79) Uj, p.345

고를 끝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맛지마 니까야』의 기술[80]이 유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81] 이 문제는 『밀린다빵하』에 이르면 결박이 많은 재가 생활은 아라한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성에 도달한 재가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날 즉시 출가하던가, 혹은 반열반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리된다.[82] 즉, 재가의 특성상 아라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아라한성 자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Uj는 기존의 입장을 계승하는 한편, 실제로 어떤 수행을 통해 재가불자도 아라한성에 도달하게 되는가, 지금까지 서술한 실천도를 가지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결론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테라와다 불교가 제시하는 재가불자의 신행은 상당히 고차원적이다. 결코 '재가'라는 입장에서 안이함을 구할 수 없는, 출가자 못지않은 내용이다. 특히 인륜에 근거한 올바른 생활습관의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종교적 실천을 행한다고 하는 Uj의 체계적 설명은 재가실천도가 지향해 가야 할 바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불교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해탈과 열반의 성취가 불도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이 점에 있어 출가 · 재가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이 점을 재가불자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가불자의 경우에는 가정생활 등으로 인해 출가자에 비해 수행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아예 재가실천도에 무관심해진다면 사실 불교도로 살아가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이다. 선정 수행까지는 당장 무리라 해도 오계 등을 지키며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현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현재 스리랑카 등에서는 초기불교의 전통에 따라 재가불자들이 포살일이 되면 가까운 사찰에 가서 계를 받고 설법을 들으며 정진한다고 한다. 한국불교계에서도 재가불자가 지계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수행일을 종단 차원에서 시행하여 그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간다면 재가불자들의 신행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며 실천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선우나 훌륭한 스승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올바르게 정립되면 좀 더 본격적인 수행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게 될 것이다.

80) MN. Ⅰ, p.483

81) 『까타왓투(Kathāvatthu)』에서는 "재가자 아라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라는 이름하에 "재가자 아라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북도파(北道派, Uttarāpātha)의 설을 소개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다. 북도파가 재가아라한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야사 등 '재가의 표식을 지닌 채'아라한에 도달한 몇몇 사례이다. 하지만 『까타왓투』는 『맛지마 니까야』의 이 기술을 인용하여 재가 아라한론을 부정한다. Kv., pp.267-268. 하지만 이 기술은 한역 해당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빨리상좌부가 덧붙인 것은 아닐까 의심되는 면이 있다고 한다. 藤田宏達, 「在家阿羅漢論」, 『結成教授頌壽記念佛教思想史論集』(東京: 大藏出版, 1964), p.69.

82) Milp., pp.264-266

참고문헌

· AN = Aṅguttara-Nikāya, PTS
· DA = Sumaṅgala-Vilāsinī, PTS
· DN = Dīgha-Nikāya, PTS
· Dhp = Dhammapada, PTS
· It = Itivuttaka, PTS
· Kv = Katthavatthu, PTS
· Milp = Milindapañha, PTS
· MN = Majjhima-Nikāya, PTS
· Uj = Upāsakajanālaṅkāra, PTS
· Smp = Samantapāsādikā, PTS
· Vin = Vinayapiṭaka, PTS
· Vism = Visuddhimagga, PTS

· 곽도영,「초기불교 재가불자의 전법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대림스님 옮김, 『청정도론』 제1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4)
· 조준호,「초기경전에 나타난 재가자의 위상과 신행생활」,『불교평론』 봄 제5권 제1호, 통권14 (서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3), pp.112-139.
· 최종남,「在家者의 깨달음」,『밀교학보』4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2), pp.53-72.

· 長井眞琴,『南方所傳佛典の硏究』(東京: 中文館書店, 1936)
· 浪花宣明,『在家佛教の硏究』(京都: 法藏館, 1987)
· 藤田宏達,「在家阿羅漢論」,『結成教授頌壽記念佛教思想史論集』(東京: 大藏出版, 1964)
· 平川彰,『原始仏教の硏究』(東京: 春秋社, 1964)
· 道端良秀,『中國佛教史の硏究 -佛教と社會倫理-』(京都: 法藏館, 1970)

· Chaowarithreonglith, Bunchird.,「Aṅguttara Nikāyaにみられる出家者と在家者の役割, -Etadagga vaggaにおける '是第一弟子'を中心として-」,『印度學佛教學硏究』54-1, 통권107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05), pp.477(76)-474(79).
· Norman, K.R., A Review on "Upāsakajanālaṅkāra",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Part 3/4, pp.154-155.

The Practice of Lay Buddhists' Faith in Theravada Buddhism

—Based on *Upāsakajanālaṅkāra*—

LEE, Ja-rang
Assistant Professo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practice of lay Buddhists' faith in Theravada Buddhism based on the literature of *Upāsakajanālaṅkāra*, written by Ānanda, a Buddhist monk of the Theravada tradition from around the 12th century.

As is already well known, a Buddhist order consists of the fourfold assembly: bhikkhu, bhikkhunī, upāsaka, upāsikā. Although their roles are different due to differences in terms of a monk or a lay person, each of them have importance as the four pillars that support the Buddhist order. As the extant early Buddhist literature has been handed down by monastics, the teachings have mostly been about and directed to monastic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conducted and accumulated on the disciplines and lives of monastics. On the other hand,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ractice of lay Buddhists due to the lack of materials or indifference. Thus, more studies on lay Buddhists from various perspectives are required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ir importance as a member of the fourfold assembly.

Upāsakajanālaṅkāra is a book that teaches how to practice the way to Buddhahood for upāsaka, as indicated in the book title. Although this book was written in the 12th century and relatively late, the theme is presented based on the Pāli *tipiṭaka* 三藏, which follows the basic ideas of Theravada Buddhism transmitted since early Buddhism. This book also explains how to perform the practice of lay Buddhists' faith under a two-fold structure: "right behavior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Way or Truth" and "religious practice based on right behavior." That is, once right faith is established through the three refuges 三歸依, then ethical life can be achieved through right behavior or following the five basic precepts 五戒. Furthermore, this book suggests how lay buddhists can practice their faith by building 10 puññakiriyavatthu 福業事 and removing obstructions to attaining enlightenment and Nirvāṇa, thereby practicing religious teachings that lead to happiness in the mundane world and super-mundane world.

Many people who follow the way to Buddhahood seek an easy and convenient life and abandon the right lifestyles that Buddhists should follow. However, the practice of lay Buddhists' faith are also as sophisticated and systematic as those of monks and nuns. Just as monastics devote their lives to supreme goodness and virtue

through their lives, lay Buddhists should also strive for practice and faith that lives up to the way to Buddhahood, and endeavor to live right lives that are worthy of the name of Buddhists. In this way, the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 of faith for upāsaka presented by *Upāsakajanālaṅkāra*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right lives that modern lay Buddhists should follow.

Keywords

lay Buddhists, upāsaka, Theravada Buddhism, Upāsakajanālaṅkāra, five precepts, eight precepts, puññakiriyavatthu 福業事

투고일자 2014.5.4 | 심사일자 2014.5.24 | 게재확정일자 2014.6.5

팔리(Pāli)문헌에 나타나는 우뻬카(upekkhā, 平靜)의 역할과 구분에 대한 연구

박재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수료

Ⅰ. 서론
Ⅱ. 초기경전의 우뻬카
1. 우뻬카의 용례
2. 우뻬카의 기능적 분류와 특징
Ⅲ. 『청정도론』의 우뻬카
1. 우뻬카의 기능적 분류와 특징
2. 초기경전과 『청정도론』의 비교
Ⅳ. 우뻬카의 구분과 문제점
1. 기능적 분류가 지닌 문제
2. 타트라마자따타
Ⅴ. 결론